

- 주요 뉴스: 연준의 통화긴축 노력, 11월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 전망 등으로 강화될 소지
 - IMF 총재, 오미크론 등으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
 -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ECB는 고물가 지속 시 2023년 금리인상 가능
 - 피치,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BBB로 한 단계 상향. 경제전망 개선 등이 반영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오미크론 관련 불확실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2%], 달러화 보합[+0.03%], 금리 하락[-13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경기둔화 우려와 기술주 약세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 지수도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0.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테이퍼링 가속화 전망과 일부 매수 포지션 축소 등이 반영
 유로화 가치는 약보합, 엔화는 0.5%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부진한 11월 고용지표 등으로 10주래 최저 수준
 독일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5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1.1% 하락, 한국 CDS 상승

		12/3일	11/26일	전주말대비			12/3일	11/26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538.4	4,594.6	-1.22%	국채 금리 10y	미국	1.34%	1.47%	-13bp
	유럽	462.77	464.05	-0.28%		독일	-0.39%	-0.34%	-5bp
	중국	3,607.4	3,564.1	1.22%	CDS 5y	한국	21bp	20bp	1bp
	일본	28,030	28,752	-2.51%		중국	53bp	54bp	-1bp
	한국	2,968.3	2,936.4	1.09%	위험 지표	EMBI+	405	415	-10bp
환율	달러지수	96.12	96.09	0.03%		VIX	30.67	28.62	7.16%
	유로화	1.1315	1.1317	-0.02%		WTI유	66.26	68.15	-2.77%
	엔화	112.80	113.38	0.51%	원자재	구리	426.7	428.4	-0.40%
	위안화	6.3765	6.3933	0.26%		금	1,783.3	1,802.6	-1.07%
	원화	1,180.1	1,193.3	1.1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의 통화긴축 노력, 11월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 전망 등으로 강화될 소지

-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 특히 이번 주(12/10일) 발표될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6.7% 올라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블룸버그의 Anna Wong 이코노미스트는 오미크론의 확산 등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양호한 수요, 원자재 및 노동력 부족, 공급차질 등도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
- 최근 연준 파월 의장이 물가상승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여, 연준 주요 인사들의 통화긴축 가속화 주장은 계속될 전망. 이를 고려할 때, 11월 신규고용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조기 테이퍼링 종료 및 금리인상 횟수 증가 등의 정책경로 변경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 총재, 오미크론 등으로 내년 세계 경제성장을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

-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오미크론의 매우 빠른 확산으로 경제회복 신뢰가 약화될 수 있으며, IMF가 제시했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4.9%)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
- 기타 고포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 특히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지적

■ 미국 11월 ISM 서비스경기지수, 69.1로 1997년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

- 이번 결과는 전월(66.7) 및 예상치(65.0) 모두 상회. 하위 구성지수 가운데 고용지수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인력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결과. 생산비용과 신규수주 등도 높은 수준을 유지

■ 골드만 삭스, 2022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오미크론 영향을 반영

- 2022년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하여, 이전 전망치(4.2%)를 하향. Joseph Biggs 이코노미스트는 오미크론 등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 다만 해당 사안에 따른 서비스 소비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ECB는 고물가 지속 시 2023년 금리인상 가능

- 닷 총재는 2022년에도 인플레이션 수준이 예상치를 넘어서면 2023년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다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정부, 독일 신정부에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

- 12/3일 공개된 환율보고서를 통해 독일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또한 신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고려하여 대담한 재정지출에 나섰던 메르켈 정부의 기초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 피치,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BBB로 한 단계 상향. 경제전망 개선 등이 반영

- 이번 조정은 이탈리아 드라기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성장률이 유로존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는 기대 등에 기인. 또한 높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출 확대 등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OECD, 일본은 통화정책 완화의 장기간 지속이 올바른 선택

- 일본의 물가는 대내외 요인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치인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되기에 전반적으로 부채 비율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지적.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중국 총리,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설 방침

-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해당 발언의 배경을 설명. 중국은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 또한 통화정책을 통해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제조업수주(전월비): 1.0%, 9월(0.2%), 예상치(0.5%)
- 유로존 10월 소매매출(전년동월비): 1.4%, 9월(2.6%), 예상치(1.2%)

■ 주요 경제 이벤트(12/6 현지시각 기준)

- 영란은행 브로드벤트 부총재 강연, 독일 10월 제조업수주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강화 신호, 이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 - 블룸버그

(Powell's Fight Against Inflation Is Already Working)

-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연준 의장과 여타 주요 인사들은 최근 테이퍼링 가속화 가능성을 제시. 이러한 구두 개입은 달러화 강세, 유가 하락 등을 유도하면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기여
- 다만 당국은 구두개입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시장에 보다 확고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
- 한편 일부에서는 재정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우려. 그러나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것임을 가정한다면 의회는 재정지출 확대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불필요

■ 세계화의 후퇴, 장기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 - WSI

(Retreat From Globalization Adds to Inflation Risks)

- 최근 공급병목, 노동력 부족 등이 인플레이션의 단기적 원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세계화의 후퇴는 장기적 측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전망. 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아웃소싱과 이민유입 등으로 자국 내 물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
- Notre Dame 대학은 국제무역의 활성화로 지난 20년 동안 미국 소비자물가가 최대 0.4%p 하락했다고 평가. 기업들은 제품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관세장벽을 낮추고 이민을 확대하도록 요구

■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의한 수출 증대, 글로벌 무역규칙 개선이 요구 - 블룸버그

(‘China Shock’ Still Shakes World Grappling With Trade’s Future)

■ 유럽의 중국 일대일로 대항마 조성, 자금 및 목표 설정 등에서 역부족 - Financial Times

(Clear ambition is required if Europe is to rival China's Belt and Road)

■ 오미크론의 확산, 세계 코로나 19 대응 전략 재설정의 필요성이 부각 - 블룸버그

(Omicron Can Reset the World's Covid Strategy)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